亞 최대 불교영화제, '세계일화영화제' 25일 개막

8월 28일까지 3박 4일간 119개 작품 선보여

개막작 '오늘 출가합니다' 비롯
폐막작 '길위에서 길을묻다' 등
총 6개 섹션, 32개국 영화 상영
3000여 관객 몰이 주최측 예상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1년 아시아 최대 불교영화제로 출범한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2022년 8월 25일 더욱 풍성해진 영화로 불자들을 찾아왔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8월 8일 동국대 영상대학원 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서 제2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OIBF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Re: Orignal'을 테마로 문명사적 위기에 처한 현시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불교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방점을 뒀다.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서 선보이는 영화들은 영화제 공모사이트 Filmfreeway 및 불교국가 대사관 등과 연계해 선정한 32개국 119편으로 이중 35편이 장편영화다.

영화 상영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연꽃' △스님을 소재로 한 '라일락' △불교가르침을 담은 일반 대중작품인 '동백' △현대사회의 공존과 조화 사상을 담은 '수선화' △특별전 및 기획전 △2022청소년영화캠프 등 6개 섹션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8월 25일 오후 5시 상영되는 개막작은 김성환 감독의 '오늘출가합니다'로 이혼한 한 현대인인 주인공이 친구와 사찰에서 나이와 이혼 경력으로 출가를 거부당하고 겪는 출가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

8월 28일 오후 6시 상영되는 폐막작 '길위에서 길을 묻다'는 신동만 감독이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과정을 다큐로 남은 작품이다.

특별전에서는 구담 스님 등 스님들이 연출한 영화를 선보이는 '수행자의 렌즈', 동국대 출신 영화인들이 구성한 '동국쇼케이스', 단편콜렉션 및 청소년들이 영화 기획, 연출한 '청소년영화캠프 상영회' 등도 진행된다.

이번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추천작으로는 '출발', '영혼의 순례길', '남매의 여름밤', '해피니스', '이너차일드' 등이 꼽힌다.

'출발'은 락커에서 전향하여 자살상담으로 유명해진 스님이 화두참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전미비평가위원회 선정 2022년 5대 다큐멘터리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영혼의 순례길'은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11명이 성지순례에 나서며 1년간 2500km를 걷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2016년 워싱턴DC국제영화제 수상작이다.

'남매의 여름밤'은 남매가 고모와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겪는 특별한 여름방학 이야기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을 포함한 4관왕을 달성했다.

'해피니스'는 부탄 오지의 어린 승려가 현대문명을 접하며 겪게 되는 변화를 그려내며 2014년 선댄스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했다.

'이너차일드'는 일상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를 버려야 했던 소년의 복잡한 감정을 담아낸 장편영화로 2022년 첫 선을 보였다.

이번 2회 영화제는 1회보다 많은 기간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쳤다. 120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이 접수되어 수개월간 심사를 거쳐 최종 상영작이 결정됐다.

차승대 집행위원장은 "수많은 작품들을 보며 매년 영화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며 "불모지였던 아시아불교영화제 분야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많은 관객들이 보고 불교 영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최단체인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주윤식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지난해 시작한 국제불교영화제가 2회째를 맞았다. 국제영화제는 전법포교의 차원에서 불교영화를 통한 불교문화 인식 확대로 무료로 진행된다"며 "이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로 장엄된 학교법당 보셨나요

동대부여중 디지털법당
'상 · 상법당' 개원

8월 11일 연화당서 점안법회
건학위 '법당 리모델링' 일환
미디어아트 후불탱으로 장엄
"디지털 법당, 새 변화 계기"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8월 11일 동대부여중 2층 연화당에서 '상 · 상법당'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종립학교 법당 후불탱화가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법당 불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8월 11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교장 전정란, 이하 동대부여중) 2층 연화당에서 '상 · 상법당, 가상이 이끄는 명상의 세계(이하 상 · 상법당)'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 전정란 동대부여중 교장, 지정학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동대부여중의 '상 · 상법당'은 어린이용 맞춤 불화를 설치한 은석초등학교 법당에 이은 두 번째 개편으로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로 주목받는 서동주 작가가 참여했다.

디지털 시대 21세기형 법당을 지향하는 '상 · 상법당'은 기존 불상 뒤에 자리하고 있던 전통 형식의 탱화 대신 고해상도 LED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 영상작품들이 불상과 적절한 조명이 어우러져 상영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전통 · 미래 △종교(사상) · 기술(혁신) △정적임 · 동적임 등 상반되는 개념들을 융합적으로 구현했다.

'상 · 상법당'은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법당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특별선서화전 수익금 일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8개 초 · 중 · 고교의 법당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종교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불교 역시 현대사회에 맞게 디지털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디지털 법당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정란 교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맞춤형 법회와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 · 상 법당'의 개원과 함께 구축된 미디어 인프라는 향후 학생들의 참여로 제작되는 컨텐츠로 채워지는 등 다양한 교육목적으로 활용된다. 동대부여중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상 · 상 법당'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심리 명상 프로그램도 활발히 제작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월, 세계유산 부석사서 '명무' 펼쳐진다

문화재청, 세계유산축전 개막
9월 영주 부석사 등서 개최
안무가 안은미 새 작품 선봬
수원 화성 · 제주서 10월 진행



8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은미 안무가가 세계유산축전 기간에 선보일 '부석사 명무전 기획기획'을 선보이고 있다.

올 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천년고찰인 영주 부석사가 명무(名舞)로 장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9~10월 경북 안동과 영주, 수원, 제주에서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제3회 2022년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9월 3일에 개막하는 첫 축전은 '이동하는 유산(World Heritage in Transit)'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세계유산축전-경상북도'이다. 올해 축전은 하회마을과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그리고 부석사와 봉정사에서 열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주 부석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이다. 9월 10일과 11일 오후 1시에는 세계적 안무가 안은미가 펼치는 현대무용극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이 진행된다. 안은미 안무가는 "경북 영주가 고향이기도 하고, 부석사의 건축물과 조각을 무척 좋아한다"며 "세계유산인 부석사에 사람의 숨결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석사에서는 매체예술전(미디어아트전) '감개무량' (9월 3~25일 오전 10시)과 산사음악회(9월 17일 오후 7시) 등이 진행된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세계유산축전 주제관'과 유휴 고택에서 국내외 유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전시가 열리며, 세계문화유산인 유교 서원들에서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축전에서는 안동과 영주 일대의 각 세계유산에 깃든 불교, 유교 등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된 주제"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사회聯, '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 학술대회

8월 22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이창익 한신대 교수 등 발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8월 2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다종교 현상과 종교 공존'을 주제로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불교 전통 성지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 작업과 함께 다종교 상황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공존의 지혜를 발휘했던 역사적 사례를 찾고 이에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종교 탄압에 대한 여러 관점, 근대 세속주의 사회에서 공공성과 신앙의 공존 문제, 종교 전파 시 발생하는 문화적 긴장 관계,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치충돌의 문제, 종교 탄압이 야기한 종교인의 망명 사례 등을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후 쟁점화된 부분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종교 탄압에 대한 제 관점 : '박해'와 '성인'을 중심으로 (이창익/ 한신대 교수), △공공성과 신앙 : 성지화와 성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용복/ 아시아종교연구원장), △종교의 전파와 문화적 긴장 : 동아시아의 불교 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욱/ 고려대 교수), △신앙과 충(忠)의 혼재 : '황사영 백서 사건'을 다시 보다 (이종우/ 상지대 교수), △남송의 선승 난계도륭(蘭溪道隆)이 중세 일본에 이식한 선에 대한 고찰 (김성순/ 전남대 교수)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은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 원장,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문광 스님, 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오용석 원광대 교수가 맡았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진행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와신상담' 금강대, 제2건학 나선다

개편안 발표…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 추진

'인문사회적 인재' 양성 목표
'프리마나 학부' 단일 체제로
불교, 행정, 사복은 전문 과정

지난해 대학역량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해제된 금강대가 학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제2건학을 선언했다. 금강대를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강대(총장 정용덕)는 8월 11일 본관 대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발전을 위한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강대는 불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나로 묶어 '프라마나(Pramana) 학부' 단일학부 체제로 학제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거듭난다는 포부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배우는 폭넓은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 생각의 틀을 깨고, 자유시민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교양을 쌓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인트존스칼리지, 일본의 아키타 국제교양대학 등이 성공적인 사례다.

'프리마나 학부'는 동 · 서양 고전 100권 읽기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중심의 주전공과 함께 불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생 선택형 커리어 개발 전문과정을 설치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 전문과정을 복수 전공할 수 있다.

금강대는 고전 독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학능력의 함양을 위해 한문 ·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 등 고전 랭귀지 스쿨도 함께 운영 예정이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3튜더 제도'도 마련됐다. 학사, 진로, 역량개발 등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3튜더 제도'는 총괄 튜더 1인과 함께 Pro-tutor(교원), Adm-tutor(행정), Edu-tutor(비교과)로 구성된다.

금강대는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금강대는 2023년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학제 개편으로 변화하는 금강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인사 영입

8월 4일 교원 임용장 수여식
한국음악과 내년 신설돼 운영
박범훈 · 김성녀 등 15명 초빙

내년 신설되는 동국대 한국음악과에 인간문화재급 저명인사들이 대거 교수로 임용됐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4일 서울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한국음악과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곽채기 교무부총장 등 학교 측 인사와 박범훈 석좌교수를 비롯해 한국음악과 교수진이 함께 했다.

동국대는 사회현장의 수요와 졸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대거 교수로 위촉했다. 교수진으로는 △박범훈 석좌교수(前 중앙대 총장) △김성녀 석좌교수(前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영재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 △최경만 특임교수(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보유자 및 보존회장) △이춘희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안숙선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덕수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이수자(반주가락)) △강정숙 특임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김해숙 대우교수(前 국립국악원 원장) △김영길 대우교수(前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윤소희 대우교수(現 불교음악원 한국불교음악학회 학술위원장) △황호준 대우교수(KBS국악대상 작곡상 수상자) △원완철 대우교수(前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 △최수정 대우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박애리 대우교수(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등 15명이다.

윤성이 총장은 "한국음악을 대표하는 분들을 우리 대학 교수로 초빙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며 자랑스럽다"며 "교수님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음악과로 만들어 달라. 학교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교수들을 대표해 박범훈 석좌교수는 "이번에 임용된 한국음악과 교수진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며 "유능한 분들과 함께하여 세계적인 학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